

목포해수청, 영광군 하낙월도 해상에 등표 신설

- 선박 운항의 위해요소 제거로 안전 사고 제로화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정문수)은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도 남쪽 해상의 수중 암초에 '하낙월도등표'를 설치하여 9월 22일부터 관리·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이 항로표지(등표*)는 국비 7.2억 원을 투입하여, 직경 5.5m 높이 14m 규모의 원형콘크리트 구조물로, 야간에도 약 15km의 먼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.

* 등표: 수중 또는 수상의 암초 또는 해저면에 설치되는 고정 항로표지

이 등표 설치로 수중암초 때문에 만조 및 안개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인근 낙월도 지역 및 영광군 법성, 백수, 흥농 등 주변 지역 소형어선 약 500여척의 안전항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목포해수청은 “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거하여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에 기여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	책임자	과 장	한창승	(061-280-1720)
		담당자	주무관	김종구	(061-280-1721)

참고

관련 사진

